

# 현실에 안주하는 영남불교

## 60% 넘는 불자 비율 불구 무기력... 사회참여 통한 위상 제고 필요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은 한국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가장 많은 불자들이 분포해 있고, 교세가 강해 한국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곳이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종교인구 분포'에 따르면 영남권으로 분류되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불교 인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0~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구는 61.4%, 부산은 67.4%, 경북 63.2%, 경남 71.9%로 조사됐다. 경남은 불교 인구가 가장 저조한 전북(23.9%)과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영남은 1985~2005년 사이 불자수가 0.3% 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0.3~3.8%까지 증가해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영남에서 불교가 10년 이상 강세를 유지하자 개신교는 부흥회를 열거나 불교 폼훼활동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신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은 사찰을 방문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등 불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한국 불교계는 이처럼 교세가 강한 영남 불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역민들의 강한 불심을 기초로 영남 불교가 전국 불교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선점하고 현재적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세가 강한 영남불교는 전통적 신앙에 치우쳐있다. 낙동강에서 '법생법회'를 하고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

그러나 영남 불교는 높은 불자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를 선도하는 모습은 아직 미약하다. 불교 폼훼 등 현안에 대한 대응 이외에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불교적 해안 제시나 사회 참여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영남권은 이런 활동의 기초가 될 불교 NGO 지부의 개설조차 미흡하다. 대표적 불교계 NGO인 재가연대조차 '대구경북 재가연대'만 있을 뿐 부산·경남에는 아직 지부가 없다. 불교환경연대도 광주전남지부가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영남권 지부가 없다. 불교계에서

는 불자수는 영남이 많지만 불교NGO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호남으로 꼽을 정도다.

불교의 사회참여는 복지를 통한 방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권은 교세가 약한 서울과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표한 '2009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불교 사회복지시설은 서울과 경기도에 28.5%, 14.2%가 분포돼 있다. 대구는 5.3%만이 분포돼 교세가 약한 전남의 4.9%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은 8.9%, 경북과 경남은 각각 11.2%, 6.6%로 조사됐다.

이처럼 영남 불교는 높은 교세에도 불구하고 사회 참여에 둔감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불교의 위상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영남 불교는 곳곳에서 개신교의 불교 폼훼가 벌어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 삭감, 전국 각 사찰 땅 밟기, KTX 울산역 통도사 병기 무산,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활동 등 불자들은 지난 3년 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대구 동화사 등 각 사찰에서 벌어진 땅 밟기 행태는 불교계의 큰 충격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영남 불교계는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항의와 대응에 나섰지만 차단하지 못했다.

전체 인구의 61.4%가 불자인 대구에서는 팔공산 불교테마공원이 개신교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구의 개신교계 인구는 19.1%에 불과하다. 울산 KTX역에 통도사 병기 추진도 개신교의 반발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

대구 절반이 불자인 만큼 교세가 막강함에도 개신교의 불교 폼훼 조차 제대로 대응 못할 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부산불교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대의 아픔을 출가자가 치유해주지 못하면 불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 "유발상좌, 포교의 아름다운 전통"

## 홍법사 제5기 마을상좌수계식 봉행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30일 대웅보전에서 제5기 마을상좌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를 통해 총 21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제자이자, 주지스님의 유발상좌 평생 오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마을상좌는 유발상좌의 다른 말로, 사발 출가하지 않고 재가

자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존경하는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홍법사의 마을상좌수계식은 2007년 10명으로 시작해, 매년 10여 명의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이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 총 70여 명의 마을상좌를 배출했다.

심산 스님은 "유발상좌는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스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게 하는 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홍법사 '제6기 동자승 단기출가'에 참여한 14명의 동자승들이 동참해, 주지스님의 마을상좌가 된 형, 누나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기자

# 지역민 복지와 행복 기원하는 장승축제

## 제8회 용호장승축제·장수잔치 개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훈성)은 5월 5~6일 양일간 복지관 일원에서 제8회 용호장승축제를 개최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가족에 발견을 주제로 '뽀로로캐릭터공연' '마술쇼' 등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함께 '장승그리기' '가족백일장' '암산왕, 도전골든벨' 등이 마련됐다.

이어 6일에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철

순, 팔순, 구순을 맞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제11회 장수잔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0여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큰절을 올리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훈성 관장은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특별기고>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 화려한 외면에 비해 내실 부족

지금까지 부산 불교는 신심만 있었다. 뜨거운 신심으로 3000배 철어기도며 봉정암 순례기도, 전국 사찰 삼사순례 등 이름이 거창한 수행정진에는 어디에도 지지 않았다.

부산 불교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는 하나 수행은 체계화되지 못했다. 부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은 부산이 아닌 바깥으로만 향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교교육은 약한 반면 전통적 신앙만 강조돼 있어, 화려한 외면에 비해 내실이나 교양적인 수행의 품위는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또 사찰별로 불교 강좌가 개설돼 있긴 하지만, 불교교리 외 신도들의 교양이나 불교적 소신을 갖고 시사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는 면에서는 약했다. 흔히 부산 사찰

들이 전국 사찰을 다 먹어 살린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정작 부산 불교계의 신심은 넉넉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부산 불교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앞으로 부산 불교가 명성에 걸맞게 나아가려고 하려면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신도 교육과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이법회가 한 사찰의 중심이 돼 아이들의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법회를 개설해야 한다. 어린이 불자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국토는 없다. 하물며 어린이들을 끝없이 교육시키고 수행면에서 무장을 한다고 하

더라도 불교를 둘러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일이다.

홍법사에서는 어린이 법회를 기본으로 '영유아 수기' '동자승 단기출가' '마을상좌' 등 끝없이 아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끄는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 오늘날 스스로를 불자라고 밝힌 숫자가 한 자리수인 현실을 감안하면 모든 스님들이 마을상좌를 뒤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포교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그저 법회에 나오는 정도로는 그 아이를 영원히 불자로 만들기에 부족하다. '부처님의 제자'이며 스님에게 진리를 배우는 아들이다' 라고 확신시켜야 한다. 동자승 단기출가에 대해 '1년에 10명 배출해서 무

슨 도움이 되나?'고 한다. 하지만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어 동자승 출신 어린이불자가 60명을 넘어섰다. 영유아수기법회 역시 3년째 100명 이상의 어린이불자를 배출했으며, 지난달 마을상좌수계 역시 이미 15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청년 불자들이 홍법사와 인연을 맺었다.

아이들은 성장기가 중요하다. 전진무구의 깨끗한 동심에 자비와 복덕, 지혜의 불심을 심으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이다.

부산 불교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사찰은 너무나 개별화돼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같이 엮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사찰의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가치관과 의례도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다.

부산에서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조계종부산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단의 지지를 현장에서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조계종연합회의 할 일이다. 그동안 사찰의 개별화를 고려해 포교구심점으로 뭉친 것은 '포교하는 스님들의 모임'인 전법도량이다. 처음 10개 사찰로 시작해 이제 15개로 늘었고, 이 전법도량을 무난히 이끄는 연습을 거쳐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원만히 발족할 수 있었다.

스님들의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교육 및 심화과정,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시사교양, 기본적인 종무행정 등 스님과 신도, 종무원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를 키우자.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수동적인 포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은 나의 제자다'라는 마음자세로 먼저 다가가는, 도심에 사는 불자들이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별장 같은 원찰의 은사스님이 계신다면 그는 아마도 환경적으로 삭막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아닐까.

지금까지 신심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교육이 바탕이 된 객관적인 종교인의 모범이 되는 단계로 진화해야

만 한다. 이처럼 불교교육과 수행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주어진 종교적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부산불교가 발전할 수도, 현재에 머무를 수도, 혹은 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는 아파하고 있는데 출가자가 치유해주지 못한다면 불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불교가 내 덕을 보게 할 신심이 우리 스님들에게 먼저 넘쳐나야 한다. 이것이 스님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이다.

지난 3월 열린 '민족문화수호대법회'에서 보여준 조계종 스님들의 열의는 감동을 넘어 '우리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런 것 없이도 뜨거운 신심만으로 지금까지 잘해오지 않았다. 부산불교는 할 수 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흰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꼭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후, 항암치료 마치고신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뿔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빛 살림

# 정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